

##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 불완전에 대한 꿈을 꾸다고 해서  
우리가 불완전은 아니다

| 개리 레너드 | 강형규 옮김 |

이 글은 '기적수업'의 입문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불완전에 대해 꿈꾸며 불완전을 느낀다고 하여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듯이,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불완전한 꿈을 깨라고 말합니다(편집자 주)



**퍼**사 : 형제여, 잘 지냈어요? 이번 겨울에 하와이에서 워크숍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면서요? 축하해요!

개리 : 이봐요, 나는 그냥 마카다미아 초콜릿 볼이 먹고 싶어서 가는 것뿐이에요. 맛이 아주 죽여줘요! 네, 물론 저는 하와이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요. 언젠가는 거기 가서 눌러 살 거예요. 나를 떼어내려면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할 걸요.

아턴 : 형제여,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때가 되면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니까요.

개리 : 아, 만만치 않은 질문이 있어요. 제 질문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한 질문이에요.

아턴 : 성령의 사고체계는 한 톨의 의문도 내버려두지 않지요. 어서 해보세요.

개리 : 신이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악몽을 꾸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 당장 아이를 깨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둘 있었어요. 또 신이 “아주 작은 미친 생각(a tiny, mad idea)”이 존재하도록 내버려둔 것 역시 사랑이 아니지 않냐고요(T586 / T-27.VIII.6:2).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턴 : 이 질문은 <수업>이 가르치는 내용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이 작고 미친 생각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당신 자녀의 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신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걸 사실로 굳혀놓을 거예요. 하지만 <수업>은 온통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알기 쉽게 말하자면, 당신은 잠에 빠져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고에게 귀를 기울이는 대신 신에 대한 기억, 즉 성령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다. 그 꿈은 ‘당신의’ 꿈이기 때문에 당신을 꿈에서 깨울 수 있는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란 사실, 당신의 상위 자아(Higher Self)입니다. 신이 성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진실은 부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꿈을 신이 창조했고 또 신이 당신을 꿈에서 깨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꿈은 사실이 되어버리겠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당신에게’ 가해지는 어떤 현실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여전히 완벽한 사랑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깨어나서 당신이 정말로 있는 그곳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개리 : 납득이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벽함 안에 작고 미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는 완벽함에 흠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턴 : 불완전에 대한 꿈이 진짜 불완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은 꿈일 뿐, 실재의 결함이 ‘아닙니다.’ 신은 꿈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꿈속에다 자신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에게 꿈은 사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신은 왜 이 꿈을 만들었지? 왜 신은 내가 이런 꿈을 꾸게 하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둘에 대해 답하자면, 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고, 꿈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꿈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꿈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꿈은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망상에서 깨어나면, 망상은 그저 사라지고, 당신은 본래의 삶, 진정한 생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에 대해 제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아들은 용서받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쉽게 들어 올려진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항상 그

자리에서 평화 속에 안식하고 있었음을 안다.”(T354 / T-17, II.7:1-2)

개리 :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다른 일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달에 일주일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베트남전 참전용사도 한 사람 참석했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베트남에서 목격했던 것들 중 일부를 지난 35년 동안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책을 읽고 나서는 그때의 경험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다른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도 우리의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의 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아턴 :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죠. 하지만 당신이 나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즐길 수 있는 한 계속하세요.

퍼사 : <수업>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형제를 발견하였고, 너희는 서로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 빛으로부터 큰 빛줄기(Great Rays)가 뒤로는 어둠 속으로 퍼져가고 앞으로는 신계로 퍼져 나가 과거를 밝혀 몰아내고 신계서 영원히 임재할 자리를 만드니,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빛 속에 눈부시다.”(T380 / T-18, III.8:6-7)

개리 : 퍼사, 아름다운 구절이군요. 당신들도 알겠지만,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은… 오늘밤이 지나도 당신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퍼사 : 그거 알아요?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결정하길 원해요. 물론 성령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지는 마세요. 잠시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당장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도 잔뜩 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지금 당신의 삶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

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작가로서의 삶을 계속하고 싶은지, 강연 여행을 계속하고 싶은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개리 : 네. 하지만 당신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난 모르는데.

아턴 : 달라질 것은 없어요. 알려주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나아요. 그동안 당신은 자신의 사생활도 포기했고 많은 이들의 투사의 대상이 되어왔죠. 내년엔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단히 용서하세요! 제이도 당신에 대해 매우 흡족해한답니다. 그가 말하듯이, 그가 청하는 작은 선물들을 그에게 계속 주세요. “그리하여 네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리는 먹구름은 한 점도 남지 않으리니, 너는 불멸하기에 죽지 않은, 신의 죄 없는 아들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T241 / T-13, II, 9:3)

퍼사 : 용서의 공부를 마치고 나면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 안에는 죄책감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생사의 쳇바퀴를 깨부수고, 다시는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의 끝입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 용서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작업이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임무를 즐겁게 해나가세요. 실제로는 아주 보수적이지만 정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 용서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작업이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작 자신은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착각하는 교사들이나 영성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엔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이가 했던 말 중 가장 짧은 말 기억나죠?

개리 : 물론이죠!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퍼사 : 좋았어요. 개리, 그렇다면 지나가는 자가 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어느 영성 단체에 부합하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사실대로 대답하세요.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당신은 어디에도 맞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다른 이들이 말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을 맞추려고는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답게 말하세요.

아턴 : 진실을 알고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용서하는 법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살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것은 불멸하기 때문”입니다(W473 / W-pⅡ.13.5:4).


퍼사 : 우리는 당신이 잠시 우리와 영으로서 결합해 있기를 원해요. 당신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몇 분 뒤에는 다시 당신 몸으로 돌아오겠지만, 그 경외감이 사그라지려면 몇 시간은 지나야 할 겁니다. 자, 와서 우리와 함께 사랑이 되세요.

갑자기, 몸의 중력이 사라지면서 몸도 사라졌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완전한 앎(total awareness)의 경험만이 있었다. 그 경험의 환희로움은 결코 묘사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그것은 계시의 경

힘이었다. 전에도 이를 경험하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내 몸에 대한 인식(awareness)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 희열을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 경험의 전체성 속에, 이제껏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다 있었다. 몸이나 분리된 무엇으로서가 아니었다. 완벽한 일체성에 대한 내 앎(awareness) 속에 다 있었다. 바깥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다. 내 부모님, 친구들, 친척들, 애인들까지 다 있었다. 이제껏 내가 사랑했던 동물들도 다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하나였으므로. 나는 아턴과 피사를 사랑했다. 이 경험이 끝나더라도 나는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 속으로 펼쳐졌다. 우리의 사랑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었으며, 실재로서 존재하는 이 희열은 진정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무엇이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의 경이로움 속에서,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었다. 오직 사랑으로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기만 하면 되었다. 시간을 넘어선 이 경험이 지나고, 나는 다시 외견상 몸 안에,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가득하고 온전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이것이 내 음성이요, 아턴과 피사의 음성이요, 제이와 붓다의 음성이요, 하나 안에 있는 모두의 음성(the Voice of All in One)임을 알았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변을 바라볼 필요를 전혀 못 느꼈기에 그저 눈을 감았다. 피곤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나는 육신이 아니었을 뿐이다. 영의 말은 곧 나의 말이었다. (이때 내가 들은 말은 다음과 같았다)

용서하는 날마다, 세상의 모든 과실(過失)이 활활 타는 불 위에 떨어지는 눈처럼 녹아 없어진다.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도, 어떤 카르마도, 앞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리라. 너는 자신을 만나 너의 순진무구

함을 선언하였으니, 그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신처럼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더 이상 태어남도 해묵은 죽음도 없으리라. 그것은 그저 생각이었을 뿐. 좀 더 많은 이들이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다시 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게 하라. 그러나 너는 몸이 아니요 사랑이니,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리라. 사랑은 사랑이기에 어긋날 수 없으니. 고통이 존재할 수 없는 날이, 사랑이 모든 곳에 충만할 날이, 진리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 그런 날이 오리라. 너는 이 날을 영원히 열망해왔다. 혼히는 침묵 속에서 의식도 못한 채. 이제 네 본성에 대한 앎(knowledge)은 더 분명해졌으니, 사랑은 그 누구도 잊은 적이 없다. 진리를 대변하는 음성(Voice)을 가리는 구슬픈 곡조 대신 영의 노래를 세상이 부를 날이 오리라. 용서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날이, 네 형제자매와 함께 마땅히 축하해야 할 그날이 오리라. 그런 후 더 이상 날이 필요하지 않을 날이 오리니. 그러면 너는 네 불멸의 본성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로서 영원히 살리라.(끝) 

- 이 글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개리 레너드(Gary R. Renard) | 베스트셀러 《우주가 사라지다》의 저자인 개리 레 드는 매사추세츠 주의 유서 깊은 북안(北岸) 지방에서 태어났고, 성공적인 직업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1987년에 일어난 하모닉 컨버전스 기간 동안에 그는 내면의 부름을 듣고 삶의 방향을 돌렸다. 1990년대 초에 메인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강력한 영적 깨어남의 체험을 겪었다. 지시받은 대로 그는 천천히, 주의 깊게 9년에 걸쳐 《우주가 사라지다》를 집필했다.

2003년 가을, 다른 강연자들과 (기적수업) 학생들의 끈질긴 격려 끝에 개리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다. 강연자로서의 새 인생은 놀라우리만치 빠르게 전개되었고, 현재 그는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세계적 단체인 오메가협회(OMEGA)의 한 구성원으로 있고 국제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한다. 마음의 무장을 풀어놓는 유머 감각과 최첨단의 급진적인 형이상학적 정보보다 실천적 훈련법까지 두루 갖춘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용기 있는 영성 강연자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개리는 미국 35개 주와 캐나다, 호주, 영국, 코스타리카 등에서 (기적수업)

을 전했다. 또 그는 2005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던 <기적수업>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의 강연 여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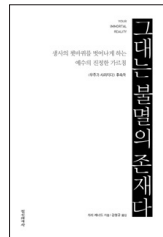
역자 | **강형규** | 그는 1980년에 태어났고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후 2008년부터 서울 미아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며, 기적수업 한국모임(acimkorea.org)에서 기적수업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내면의 평화 재단'의 <기적수업> 한국어 번역자 구정희의 마무리 작업에 함께하고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생사의 헛바퀴를 벗어나게 하는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

저자 **개리 레너드** | 역자 **강형규** | 출판사 **정신세계사** | 정가 15,000원



###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기적'의 실체!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여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우주가 사라지다>의 후속작인 이 책은 전편이 출간된 이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저자가 두 달 간격으로 모두 열 한 차례에 걸쳐 경험한 영적 체험을 진솔하게 기술한 대화록이다. 심리학자였던 헬렌 슈크만이 7년간 들어온 내면의 음성을 받아적은 영적 고전 <기적수업>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입문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 저자가 다른 차원계로부터 방문한 예수의 두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들을 통해 각자의 에고가 만들어낸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영성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